

01 교회소식

교회 개척 39주년 기념 예배

지금까지 모든 연단을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을 이룬 것처럼 믿음과 진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만민이 되기를.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곱 가지 말씀, 곧 가장철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아본다.

03 기획특집

만민 위에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표적, 응답 등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동안 만민의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04 간증

“주님은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육상에 입문, 2년 만에 교무대 정상에 오른 ‘한국 육상의 미래’ 다니엘 형제의 간증.

만민뉴스

제949호 2021년 8월 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믿음과 진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이뤄”

교회 개척 39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



축하 공연
(사전 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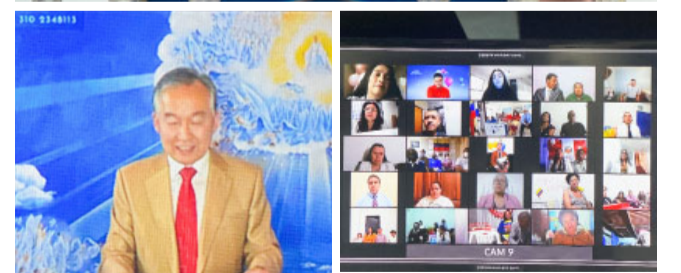
랜선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9주년 기념 예배

지난 7월 19일(월) 오전 9시(현지 시각 18일(주일) 오후 7시), 교역자 회장 이미경 목사를 강사로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9주년 기념 예배’가 줌(zoom)을 통해 콜롬비아만민교회와 우리 교회를 연결해 랜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는 유튜브, 페이스북과 JBN TV 등을 통해 실시간 송출돼 콜롬비아 외에도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총 17개국의 성도들이 함께했다.

특히 온두라스 JBN TV(사장 에스테반 한달)가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송출한 줌(zoom) 영상을 받아 실시간으로 온두라스 및 중남미에 송출했다.

장정연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 예배에서 강사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기까지’(히 10: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줌으로 시력이 회복되고 천식, 호흡곤란, 무릎관절염, 역류성 식도염, 퇴행성관절염, 편두통, 전신 통증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어 많은 성도가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난 7월 25일, 우리 교회는 개척 39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GCN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는 가운데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었는데, 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사 42:8)이라는 영상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민의 역사 속에 펼치신 권능의 역사들을 회고해 보며 기사와 표적, 응답으로 함께하시며 세계 만민을 품으로 모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기념 예배에서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롬 5:3~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단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해 성장하며 소망을 이뤘은

만민은 이제 마지막 때 대성전 건축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새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당회장님께서 오직 믿음과 순종, 선과 사랑으로 어떤 연단도 축복으로 바꾸시며 소망을 이뤄오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진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며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예배 후 이어진 축하 공연은 사전 녹화로 준비된 공연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악 앙상블의 연주와 서승원 집사의 솔로, 서경애 권사의 독무 순으로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다. 그 뒤 서승원 집사의 인도로 회중찬양이 이어졌는데, 온라인으로 함께한 국내외 성도들은 함께 찬양함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님의 가상칠언(2)

“예수께서...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요한복음 19:26~29)
 “제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마태복음 27:46)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곱 가지 말씀이 바로 가상칠언(架七言)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 중 제3~5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제3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낳아 준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 부르시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모친’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표적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때도 동정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지요. 이같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고 공생애를 마감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온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요(출 3:14),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마리아에게 ‘어머니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잉태될 때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인큐베이터가 아기의 부모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시 않고 ‘여자여’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라고 표현한다거나 마리아 형태의 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진리에 합당치 않은지를 알아야 합니다(출 20: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함을 알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중에도 사후의 일까지 살피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그리하여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친어머니처럼 섬기며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은 후, 남편인 요셉과의 사이에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 자녀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한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지요.

우리가 육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부모의 정자와 난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또한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잉태된 아이에게 영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는 마귀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요 8:44). 그러니 이 땅에서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라 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시며 참된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마 12:50). 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훼방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행하는 가족에게 맞춰준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요. 또한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제4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혹독한 고통을 받으며 여섯 시간째 매달려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곧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지 여섯 시간이 지난 오후 3시 즈음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혹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셨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도 다 아셨지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을 선택하셨습니다. 더구나 모든 고통이 끝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실 리가 없지요. 따라서 이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크게 소리 질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밤새 끌려 다니며 심문을 받으셨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여섯 시간을 피 흘리며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처럼 소리 지르실 만한 기운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는지,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서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지요.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운명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서는 온 힘을 다해 외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건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알아서 구세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기 원하셔서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회개해 구원의 길로 돌아와야 함을 간절히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독 본문에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

자가에 달리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이 미혹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를 용서받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버림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3. 제5언 “내가 목마르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서는 오랜 시간을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태였지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단순히 갈증을 호소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피값을 찾아드림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 달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피값을 찾아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까닭은 죄인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함이므로 예수님의 피값을 찾아드리려는 것은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전도하여 천국으로 인

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전도하는 것 외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거나 선교를 위해 물질을 심는 등 간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니 어떤 사람이 해움에 적신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 드렸습니다. 이때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시 69:21)대로 신 포도주를 맛보셔야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맛보신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신 포도주, 곧 오래되어 묵은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며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신약의 사랑의 법을 의미하지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반드시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매번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곧 우리를 위해 신 포도주를 받으신 것이지요. 따라서 이를 믿고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신 포도주를 받아 입에 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철언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동안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이래로 나타난 권능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한 대로 권능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또 인생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만민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 응답으로 자신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이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동안 만민의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갖가지 재해와 공허 속에 신음하는 전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세계 만민을 품으로 모으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재록 목사 설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 중에서





“꿈을 향해 오늘도 달립니다!”

비워사 다니엘 가사마 형제
(19세, 해외교구)

2018, 2019년 ‘만민하게수련회’ 체육대회 남자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로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는 다니엘 형제.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육상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중3 때 주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야 비로소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이후 입문 2년 만에 고교무대 정상에 오르며, ‘한국 육상의 미래’라 불리는 다니엘 형제는 ‘제일의 목표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라고 한다.

어릴 적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던 저는 학교 대표로 육상대회에 출전하기도 하고, 안산시 대표로 많은 경기를 출전하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이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을 가지셨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회에 출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전국 단위 대회가 아닌 안산시 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중학교도 일반 중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게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항상 기도제목이었지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기도의 분이 되어 주셨고,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해야 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에 귀화하고자 하셨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계속 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 2018년 8월 초,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어머니가 귀화에 성공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만민하게수련회 체육대회의 남자 100미터 달리기에서 처음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기에 응답받은 시점이 더욱 더 뜻깊었지요.

더욱이 그해 8월과 9월에 열린 안산시 육상 경기에서 모두 1등을 함으로 지금의 코치님과 연결돼 육상 특기생으로 2019년 원곡고등학교에 입학해 전문 육상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요.

2020년 6월, 제74회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100미터 청소년 남자 준결승에서 1위를 차지해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뜻밖의 다리 근육 부상으로 인해 대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올해 대회에는 출전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해 결승을 통과해야만 다음 시즌에 출전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해 7월, 제48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 남자 고등부 100미터 결승 경기가 열렸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경기 중간 중간에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기도를 받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문제 없이 잘 뛰었을 뿐 아니라 대회 전 10초 95였던 기록이 10초 69로 단축되었지요.

이와 더불어 8월에는 제49회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서 남자고등부 400미터 이어달리기 결승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해 2관왕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기도하며 당회장님 자동응답서비스(ARS)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받은 후 몸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 잘 뛸 수 있었습니다.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100미터 경기에서도 우승을 하고 처음 출전하게 된 200미터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지요.

2021년 6월에는 제50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고등부 100미터 결선에서 10초 441로 우승했습니다. 지난해 작성한 10초 69를 단축해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지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잘 알기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당회장님 기도를 받으며 일과를 시작합니다. 운동하기 전과 자기 전 포함해서 하루에 세 차례 기도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꿈은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9 만민하게수련회’ 체육대회 시 남자 100m 달리기와 여자 팔씨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다니엘 형제와 어머니 버지니아 집사.



‘2019 만민하게수련회’ 체육대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안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1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영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창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